

경영저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강성호
도시발전의 새로운 발진축, 서대구복합환승센터
행복한 서구

COVER STORY 강성호 대구 서구청장
도약하는 서구 대구의 새로운 발전축,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경영Story 도덕적 경영의 사표(師表),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Hot Issue 출발 전부터 뼈격거리는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지자체가 뵈다 대구 동구청 평생학습과 학습진흥계
부동산 레이더 세종시 누른 대구 아파트값, 4·1 부동산대책 약탈 받았나?
생생 금융정보 DGB금융그룹 창립 2주년, '지역을 애인처럼'
Dream Interview 최종석 내당2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초대석 장두욱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음식명가 한정식·찜요리 명가 '만부정'

46th
2013 6



지역과 함께, 이웃과 함께
내당2동 새마을금고

www.kfcc.co.kr

고마워요 50년, 함께가요 100년

최고 7,00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 **새마을금고 예·적금**
 주택구입자금부터 학자금까지 **새마을금고 대출**
 미래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집에서, 사무실에서 어디서나 편리한 **폰뱅킹, 인터넷뱅킹**
 포인트적립에서 다양한 할인혜택까지 **MG체크카드**



이사장 최 증 석

본 점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4길 35(내당동)
Tel 053)572-0041~3 Fax 053)572-0045

서문지점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12길 30(내당동)
Tel 053)572-0046~7 Fax 053)572-0048



12



07 News Wide

지역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자격 갯추고도 용역 수주 소외

08 Cover Story

강성호 대구 서구청장

교육으로 꿈을 키우고 누구나 성공할 기회를 주는 살맛 나는 도시, 서구

12 도약하는 서구

대구의 새로운 발전축, 서대구복합환승센터

15 매력의 도시 서구

테마가 있는 섬유스트림 산업관광

18 지방자치단체 정책탐구 I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올바른 방향

20 경영Story

도덕적 경영의 사표(師表),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25 청호(靑湖)칼럼

조직관리 성과, 선비정신이 해답이다

26 Hot Issue

출발 전부터 삐걱거리는 대구 도시철도 3호선

30 생생 금융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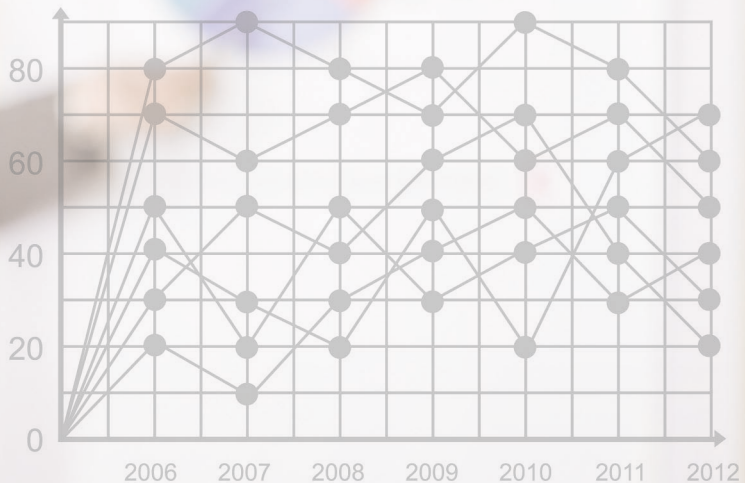
DGB금융그룹 창립 2주년, '지역을 애인처럼'

32 부동산 레이더

세종시 누른 대구 아파트값, 4·1 부동산대책 악발 받았나?



www.**KEPI**.or.kr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기관

한 | 기 | 연



- 35 **윤기태의 Tax&Accounting**
상속의 방식과 상속세 절세 방법
- 36 **지방자치단체 정책탐구 II**
관광특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39 **칭찬합시다**
김윤길 청도군청 드림스타트센터 운영팀장
- 40 **지자체가 된다**
대구 동구청 평생학습과 학습진흥계
- 42 **지방자치단체 정책탐구 III**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경북의 공적개발원조(ODA), 새마을운동
- 44 **Dream Interview**
최종석 내당2동새마을금고 이사장
- 46 **초대석**
장두옥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 48 **음식명가**
한정식 · 찜요리 명가 '만부정'
- 51 **지역소식**

경영저널

통권 제46호

발행인·인쇄인	이진구
편집장	백재호
취재	배준수
사진	김원현
편집디자인	신동희
편집위원	홍순대, 손지강, 이광희, 김기환 장승욱, 민경량, 이포상
인쇄처	신흥인쇄
발행처	www.경영저널.com
본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경북본부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427-6번지 203호
대표전화	대구 053)766-1368 FAX 054)766-1356 안동 054)823-2828 FAX 054)823-2827
등록번호	대구라07691
창간	2007년 11월 5일 (등록일자 2011년 3월 22일)
구독 및 광고문의	053)766-1368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 연 48,000원
정가 : 5,000원
예금주 : (주)경영저널

대구은행 225-12-003611

국민은행 698301-04-034744

※ 입금 후 정기구독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053)766-1368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 및 월간지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사진 및 기사의 저작권은 본사에 있으며 사전허가 없이 무단전제, 복사를 금합니다.

〈독자 투고를 받습니다〉

경영저널은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받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에 대한 칼럼 및 평론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지 1장(글자 10포인트)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대구·경북 시·도민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 706-84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경영저널 편집 제작국 독자 기고팀 담당자 앞
이메일 k_journal@daum.net
전화 053) 766-1368 FAX 053) 766-1356

Time for your health

제13회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제7회 건강의료산업전

2013. 6. 21(금) ▶ 6. 23(일) exco

동시개최행사

제3회 대구 의료 관광 전
제11회 대경피부미용치료학술대회
국제탈장학회심포지엄
의료인 5개 단체 보수교육
(의사, 약사, 간호사 등)

www.대한민국한방엑스포.kr
www.mediexpo.co.kr

지역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자격 갖추고도 용역 수주 소외

지역 전문기관 육성과 보호 위한 대책 마련 절실



대구와 경북지역 일부 학술연구용역기관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의 신축을 위한 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전문기관 자격을 갖추고도 용역 수주에 있어서 지자체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사나 지역본부를 설립하고 딜러 형태로 영업을 펼쳐 용역을 수주하고 있는 일부 수도권 학술연구용역기관들이 지자체의 용역을 독식하는 경우도 있고, 본사가 아닌 지사와 계약을 맺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141호에서 규정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자격조건은 조사 수행인력 박사 2명, 석사급 5명 이상을 포함한 총 인원 15명에도 기본재산 3억원 이상 등이다.

월간 경영저널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자격요건'이 고시된 2009년 6월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경북지역 23개 시·군이 발주한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A지자체의 경우 모두 8건의 용

역 가운데 75%(6건)를 서울과 수도권 용역기관에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의 B업체는 2개월에 걸쳐 3건의 용역을 수주하면서 1건은 본사, 2건은 지역지사를 지자체와의 계약주체로 내세웠으며, 용역 수행은 본사에서 모두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전문인력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고도 외지업체와의 용역 수주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지역 학술연구기관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계약법에 원가계산 용역의 경우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지만, 학술용역의 경우 이 규정이 전무해 지역 전문기관이 소외받을 수 있다"며 "지자체들도 충분히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의 전문기관을 관심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편집국〉

| 인터뷰 | **강 성 호**
대구 서구청장



‘19.9%, 7위’. 올해 대구 서구의 성적표다. 19.9%의 재정자립도.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남구(17.4%)를 가깝스로 넘어 겨우 꼴찌를 면했다. 모든 것이 열악하다. 그래서 2011년 10월 보궐선거로 서구의 수장이 된 강성호(47) 구청장은 발로 뛰었다. 직원들도 동참했다. 국·시비 공모사업에 도전해 잇따라 선정되면서 살기 좋은 서구 만들기의 기틀을 마련했다. 교육과 복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2+2’ 정책은 구민이 외면하는 낙후된 이미지에서 점차 ‘살아 볼만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서구의회 의원, 대구시의회 의원을 지내며 ‘최연소’ 꼬리표를 물고 다녔던 강성호 서구청장이 이끄는 젊은 서구의 미래를 들여다봤다.

교육으로 꿈을 키우고 누구나 성공할 기회를 주는 살맛 나는 도시, 서구

Profile

1966년 대구 서구 상리동

대건 중·고교 졸업

대구대 졸업

대구대 총학생회장

월간 저널시대 정치부, 사회부 기자

제2대 서구의회 의원(1995년 최연소 당선)

제2대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최연소)

제3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1998년 최연소 당선)

제4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위원장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대구광역시의회 삼성상용차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산업자원부 지정 모바일 디스플레이 산학연센터 고문

대구광역시 롤러 인라인 연맹고문

대구광역시 복싱 연맹 고문

차세대 정치지도자 선정(국가경영전략연구원)

희망서구21포럼 대표

제23대 대구 서구청장 취임(2011년 10월27일)

Q

취임 1년7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젊음과 신바람을 키워드로 내세우고 펼친 구정(區政) 활동의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A

‘꿈과 희망이 자라는 행복한 서구’라는 슬로건과 교육, 복지, 경제, 문화, 주거 등 5개 분야의 구정목표를 설정해 구민이 행복한 서구 건설에 온갖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역점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구정 각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성취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구민들의 체감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생활현장 구석구석 열심히 뛰어다닐 계획입니다.

Q

서구 토박이 입장에서 본 서구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A

타 지역과 비교하면 낙후되고 발전이 정체된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988년 달서구와 분구 당시 서구는 대구시의 중심이었고, 산업단지와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분구 직후 41만명이던 인구가 25년이 지난 지금 21만9천명으로 줄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



강성호 서구청장은 젊은 구청장답게 전 세계를 휩쓸었던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서구스타일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화제가 됐다.

엇보다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정주 여건과 교육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구도심인 서구는 지난 몇 년간 건설경기 부진으로 지역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성장동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구는 과거의 명성을 찾을 수 있는 발전계기 마련과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Q 대구의 새로운 발전 축으로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은 서대구화물역 부지를 활용해서 KTX역을 만들고,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 북부정류장, 서부정류장 이전과 함께 광역전철망, 대구~광주 철도, 지하철 4호선 등 각종 교통수단이나 시설을 이곳에서 연계 환승할 수 있도록 대규모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시설 외에도 백화점이나 호텔, 컨벤션센터 같은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문화시설, 공공기관 등을 건립하고, 이 일대 역세권을 복합

적으로 개발해서 대구 서부지역의 랜드마크와 신성장거점을 만드는 계획입니다.

Q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의 당위성은 무엇입니까.

A 이 사업은 단순히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대구 발전이 동쪽에 너무 편중되고 상대적으로 서쪽에는 성장동력이 없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서부지역에 새로운 발전 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접한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이나 평리5·6동 재정비촉진사업과 연계해서 이 지역 일대를 부도심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대구에는 혁신도시와 침북단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시가지의 발전이 동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반면, 서쪽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과 기피시설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발전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에 획기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운 발전 축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구정 최우선 과제로 교육을 꼽으셨고, 관련 사업도 많이 추진해 오셨습니다. 교육을 통해 사람이 모이고 발전을 거듭하는 서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A 다시는 구민들이 자녀교육 문제로 서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취임 후 곧바로 교육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교육으로 꿈을 키워가는 서구'를 구정 최우선 과제로 정해 4개분야 25개 교육정책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6월 구청 4층에 개관한 구민학습관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강좌를 비롯해 인문학, 취미교양 강좌, 가족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구민평생학습의 메카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여건이 인구유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환경이 좋아서 명문학군이 되면 인구증가와 함께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되어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으로 정주 여건



강성호 서구청장이 대구 지자체 최초로 직접 일일동장 체험에 나서 구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개선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우리 구로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과 함께 지역발전의 동기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지난 4월 의회와의 진통 끝에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구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한 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A 교육발전위원회는 교육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교육환경 개선을 비롯해 자기주도학습, 창의체험활동, 학부모 역할증진, 교육 국제화 사업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워 면학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확대로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지원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은 이제 더이상 교육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며 행정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공동책임 의식을 갖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17명 정도의 임원으로 오는 9월 설립해 50억원의 기금을 모을 예정이며, 명문학교 육성, 우수교사 유치, 학교시설개선, 교육의 국제화, 자기주도학습, 창의체험활동, 방과 후 및 주5일제 수업 프로그램 지원, 학부모교육, 교양 및 인문학강좌,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Q **젊은 구청장답게 파격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가수 사이의 강남스타일을 서구 스타일로 패러디한 것입니다. 서구 스타일 뮤직비디오 제작 배경과 뒷이야기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A 서구가 과거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시작됐고, 특히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인정 많고 활기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 구민들에게 자긍심을 주기 위해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과 구민학습관, 전통시장, 염색공단, 쿼스로드, 학교, 공원 등 서구를 상징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지역공동체의 정겨운 모습들을 재미있게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말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일부에서 단체장으로서 가벼운 처신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서구가 또 하나의 새로운 발전과 변화의 시도를 했고 반응도 상당히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SNS가 대세를 이루는 현대사회에서 구민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담 | 백재호 편집장

정리 | 배준수 취재부장 · 사진 | 김원현 기자

대구의 새로운 발전축, 서대구복합환승센터



대구 서구 이현동 11만9천699㎡의 서대구화물역부지는 20여년 전부터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이 이뤄졌으나, 민간자본 6천700억원의 조달이 여의치 않아 흐지부지됐다. 그러나 최근 대구 서구청과 주민들이 강력하게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13만7천410㎡에 달하는 서대구 화물역부지와 사유지 전경.

낙후된 서부지역 교통인프라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조건 대구시는 외면, 관련 지자체와 국회의원은 간절한 호소 “새 정부 국정사업 추진돼야” 한 목소리

혁신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대형마트와 상가, 복합환승센터... 모두 대구의 동편에 쏠려 있다. 그 중에서도 서구는 지하철, 국제학교 등 갖춘 것보다 갖추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다. 서구를 포함한 대구 서부지역과 경북 서남부권 주민들은 서울 행이나 부산행 열차를 타려해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동대구역으로 가야한다. 공단 입주 기업들 또한 비즈니스에 애로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20여년 방치된 서대구화물역부지를 서대구복합환승센터로 건립해야 한다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KTX와 광역철도, 고속·시외버스 등 교통수단별 원스톱(One-Stop) 환승시설과 상업시설, 업무시설, 공공기관을 함

게 갖춘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계획은 대구 동쪽에 편중된 불균형 문제에서 시작됐다. 기피시설이 밀집되고 낙후된 서부지역의 발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서대구화물역부지가 서구 관문인 서대구 IC에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난 점 등 교통요충지로서의 장점이 크다.

부지확보도 쉽다. 11만9천699㎡의 서대구화물역부지는 코레일이 64%, 대구시가 20.5%, 서구청이 15.5%의 지분을 갖고 있다. 1만7천711㎡의 사유지만 추가로 매입하면 된다. 사업비는 6천716억원이 들어가며 민자 유치 등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는 게 서구청의 예상이다.

강성호 서구청장은 “교통시설과 연계해 상업·업무·문화시설 복합개발로 서대구복합환승센터는 그야말로 대구의 신성장거점이 될 것”이라면서 “국가 기간교통망 연결과 역세권 개발을 위해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대구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되면 누리게 될 효과 또한 엄청나다.

대구·경북 서남북지역 215만 주민들에게 획기적인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역세권 개발로 교통, 상업, 문화시설

확충과 신성장 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고, 대구·경북지역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원활한 물류소통과 비용절감이 기대된다.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해 강성호 서구청장을 비롯해 서구 주민, 인근 지자체 등 모두가 고군분투하고 있다. 여기에 이종진 국회의원과 대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군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대구 서구의회 특별위원회, 대구 8개 구·군 의장이 힘을 보탰다.

그런데도 정작 대구시는 이 같은 지역의 염원에 미온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했던 국정과제 가운데 서대구복합환승센터를 제외시켰고, 대구시의 장기정책과제로만 남겨둔 것이다. 사실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구시의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강성호 서구청장은 “지역 현실을 외면하고 구태의연한 발상으로 거액의 사업비 탕만 하고 있는 대구시가 현재 추진중인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차질을 빚을까봐 염려돼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미온적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구시의 냉랭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대한 지역민의 의지는 곳곳하기만 하다.

6월 중 서구 의정동우회 회원을 비롯해 주민 50여명으로 발족하게 되는 민간추진위원회는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결집하고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행동으로 나서고 있다.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정부의 국책사업 채택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서대구복합환승센터를 염원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지고 있다.

“대구는 동대구역과 고속버스터미널이 동쪽에 치우쳐 있고, 여러 개의 시외버스터미널이 분산돼 있어 많은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과 환승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은 새 정부가 반드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종진(대구 달성) 국회의원〉

“대구시는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을 국가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민자사업계획도 잡아나가야 합니다.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도노선과 도로망을 따라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김의식(대구 서구) 대구시의원〉

“낙후된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복합환승터미널 건립이 절실합니다. 20년 이상 방치된 서대구화물역부지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해야 합니다.”

〈강성호 대구 서구청장〉

글 | 배준수 취재부장
사진제공 | 대구 서구청

서대구복합환승센터 사업 개요

환승시설 KTX, 광역철도, 도시철도, 택시,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상업시설 백화점, 호텔, 숙박시설, 문화시설, 기타 상업시설

업무시설 컨벤션센터, 국제관, 근린생활시설

공공기관 서대구역사, 다문화지원센터, 관광정보센터, 특산물홍보관 등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성주

해동 제일의 명산 성주 가야산
세계 명물 성주 참외
기업하기좋은 성주
생활사의 고장 성주로 오세요

生

活

死





대구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외국인 유학생 150여명이 지난 3월 '테마가 있는 섬유스트림 산업관광'에 참가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첨단섬유 체험관에서 기능성 섬유제품을 관람하고 있다.

“섬유가 관광을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왔어요”

‘테마가 있는 섬유스트림 산업관광’, 섬유에 관광의 옷을 입히다
3개 코스에서 의류 제조 · 염색 체험, 첨단섬유까지 한 눈에

30여년 전 대구의 섬유산업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1990년대 이후 침체기를 맞은 뒤 섬유도시 대구의 위상도 추락했다. 섬유산업의 메카였던 대구 서구도 자연스럽게 발전에서 멀어졌다. 그랬던 대구 섬유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연구 · 개발을 강화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기능성 소재 신상품 출시와 슈퍼섬유 개발 등으로 섬유 수출액이 점차 늘고 있기도 하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다이텍연구원(옛 한국염색기술연



섬유스트림 산업관광 참가자들이 퀸스로드 아울렛에서 천연염색 체험을 하고 있다.

구소), 서대구산업단지와 대구염색산업 단지 등 수많은 섬유 인프라를 품고 있는 서구가 섬유산업에 관광의 옷을 입혀 내놓은 관광상품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관광 불모지’ 서구가 이색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섬유산업에 관광 접목

‘옷 만드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면 제품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구입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구 서구청은 여기에 착안했다. 지역 대표산업인 섬유를 알리기 위해 관광프로그램을 접목한 것이다. 지난해 문화체

육관광부의 산업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2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서구청은 먼저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 15종의 첨단 기능성 섬유를 관람할 수 있는 첨단섬유전시관을 비롯해 원사 제조 공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제품개발센터, 섬유의 역사와 현황, 정책 비전에 관한 동영상 볼 수 있는 공간을 갖춘 섬유산업관광 코스를 마련했다. 또 (주)진영P&T 등 섬유회사에서는 날염공정과 이불, 손수건 등의 완제품 생산과정을 견학할 수 있는 코스를, 퀸스로드 아울렛에서는 천연염색과 한지공예 체험이 가능한 코스도 만들었다. 모두 3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3개 코스에는 대구 섬유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담겨 있다.

여기에는 중국어와 영어, 일본어를 잘하는 결혼이주여성 10여명을 선발해 대구의 섬유 역사와 기본 지식에 대해 교육을 거쳐 섬유해설전문가로 활용하고 있다.

대구 대표 관광상품으로

‘테마가 있는 섬유스트림 산업관광’으로 이름 붙여진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부터 5월 현재까지 1천2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했고, 섬유관련 업체와 학교에서 첨단섬유와 날염공정을 견학하기 위한 방문객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11월까지 53개 학교 2천200여명의 학생이 섬유스트림 산업관광을 계획하고 있을 정도다.

서구청은 이 관광상품을 대구의 섬유를 널리 알리는 대표 관광상품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시티투어와 연계할 예정이다.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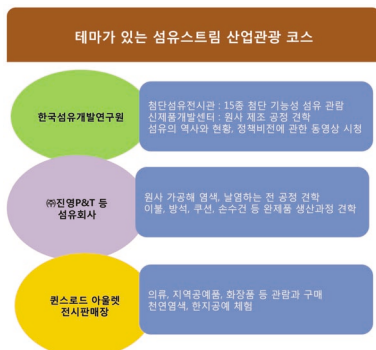
서구청은 또 이 관광상품이 학생 교육용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에 반영할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서구청은 이 관광상품이 무엇보다 섬유산업이 쇠퇴 내지는 사양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타지 않는 전투복 같은 첨단제품과 우주발사체 나로호에 사용된 섬유복합재료 등으로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접목할 예정이다.

강성호 서구청장은 “지역 대표산업인 섬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광상품화를 위해 시작했는데 초중고생들은 물론 지역 대학 외국인유학생 등의 반응이 좋다”면서 “각급 학교 체험학습과 수학여행단은 물론 외국인관광객도 유치해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글 | 김원현 기자

사진제공 | 대구 서구청



제 5 회 장기 산딸기 문화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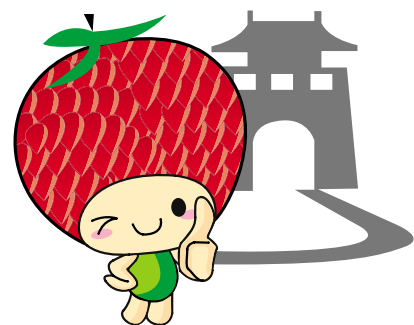
The 5th Jangi Raspberry Festival

| 일시 | 2013. 6. 8(토) 10:00

| 장소 | 장기초등학교 운동장

- 식전행사 : 다산 정약용 유배길 재연, 사물놀이 공연 등
- 공식행사 : 개식행사, 평양예술단 특별공연,
전자퓨전댄싱 공연, 초청가수 공연 등
- 부대행사 : 산딸기 시식 및 특판행사, 먹거리 장터 운영,
산딸기효소 만들기, 무료 체험행사 등

| 문의 | 장기산딸기문화축제추진위원회(☎270-6662~5)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올바른 방향

공익성 · 수익성 동시 추구하는 비기업적 경영활동

지방자치단체가 비권력적 사업주체로서 공익증진과 자주재원의 확보라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 내 유희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해 민간경제 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비기업적 경영활동을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한다.

이 용어는 학문적 · 법률적 · 제도적 용어가 아닌 실무행정용어로서, 다양한 비공기업 사업을 운영하면서 형성된 실무적인 개념이다. 이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배경이 없어 학문적 ·

제도적 정의는 찾아보기 어렵고 사업영역 또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 개념 정의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다의적 개념이다.

1979년 강원도 양양군이 하천모래 및 자갈 채취 사업으로 세외수입을 올린 것이 첫 사례로 알려졌으며,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는 양양군의 사례가 타 지자체로 확산하자 이 같은 유형의 사업을 경영수익사업이라 이름붙였다.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 행자부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했고, 이때부터 지방경영의 한 형태로서 이 용어가 구체적 의미가 있게 됐다.



문경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폐선된 철로를 활용해 철로자전거를 개발·운영하면서 한해 1천억원 이상의 매출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뤄냈다. 문경시 제공.

경영수익사업과 지방공기업사업 비교

구분	지방공기업		경영수익사업
	직영기업	공단·공사	
사업주체	지자체(직영)	간접경영	지자체
사업목적	공익성, 경제성	공익성, 경제성	경제성, 공익성
사업규모	대규모	중소규모	소규모
별도조직	필요	필요	불필요
회 계	공기업특별회계	특별, 기업회계	일반, 특별회계
사업효과	범위	지역적	제한적
자금회수기간	장기	중/단기	단기

※자료 : 모성은, 지방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전략, 『지방자치』, (2001.5월호), 81면, 수정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개념은 크게 이론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주민의 추가적인 조세부담이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함이 없이 경영적인 취지에서 운영하는 지자체의 공공활동이라 할 수 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지자체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 없이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유휴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해 재정확충을 돕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경영수익사업이 비록 지자체가 빈약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지자체가 직·간접적으로 주체가 되는 만큼 민간기업의 경영원리에 따라 최대의 수익을 추구하고자 해도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우선해서 추구해야 한다.

5가지 특성

경영수익사업의 특성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에 일차적 목적 △수익성과 공익성 동시 추구 △비권력적 행정행위 △신축적인 운영 가능 △시장실패로 인한 민간

부분의 한계 보완이다. <표 참조>

문제점

경영수익사업은 여러 순기능적인 측면에도, 공공성을 도외시한 채 민간투자가 바람직한 분야까지 뛰어들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친다는 우려와 함께 사경제 침해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도심의 야산을 깎아 대규모 눈썰매장을 조성해 환경단체와 시민들로부터 환경권을 담보로 돈벌이한다는 비판을 받는 지자체도 있다. 일부에서는 민선단체장들이 자신의 경영마인드를 과시하고자 사업타당성 분석이나 관련법규조차 검토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추진했다가 뒤늦게 취소하는 등 부작용도 일고 있다. 또한, 무리한 사업추진,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수익사업을 발표했다가 추진이 흐지부지되거나 수익사업이 오히려 예산낭비를 가져온 경우도 있다.

나아갈 방향

경영수익사업은 본질적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병행하기 매우 어려운 두 가지 속성을 병행시켜야 하는 모순에서 출

발한다. 이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을 사기업과 공공부문의 특성 및 영역을 부분적으로 지닌 회색지대(gray area)의 사업으로 부르고 있다.

따라서 민간경제영역과 겹치거나 사경제 활동을 침해하는 사업추진은 지양하고, 공익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적이고 지역개발 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영수익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사업에 대한 투자 가치가 있는가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일련의 과정과 방법인 타당성 검토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중요한 사전작업이다. 이처럼 중요한 타당성 검토가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먼저 추진대상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종합검토 분석을 해야 한다. 사업수행능력 등 추진여건도 검토대상이다. 또 신규사업에 대한 재무·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외부전문가(연구기관, 컨설팅 기관 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체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환경 속에서 지자체의 생존을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함께 지역경제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경영수익사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대두됐다. 재정건전성과 지역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지자체의 정책에 순환고리 역할을 해 모두가 건강한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글 | 홍순대 편집위원



도덕적 경영의 사표(師表),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갑의 횡포,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최근 남양유업 사태를 비롯해 라면상무, 빵 회장 등의 사건은 기업들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작년 대선 당시 여야 대선후보들은 경제민주화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역설했고 경쟁적으로 공약화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미 85년 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역설했던 경영인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유한양행의 창업자 '유일한'이다.

요즘은 TV광고가 뜰하지만 70~80년대 세대라면 '버들표 유한양행'이라고 끝맺는 유한양행의 광고를 잘 알고 있다. '국민연고'라 할 수 있는 안티푸라민을 만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제약회사 중 하나인(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제약회사는 1897년 설립된 동화제약으로 히트상품으로 '까스활명수'가 있다.) 유한양행은 1926년 유일한이 설립했다.

유한양행은 85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지만, 삼성이나 현대처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것도, 국내 시장을 석권하는 시장지배력을 지닌 회사도, 그렇다고 넘볼 수 없는 기술력을 지닌 회사도 아니다.

그럼에도, 유한양행은 우리 기업사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 책임, 더 나아가 사회적 공헌을 기업의 존재가치로 설정한 최초의 회사이며, 창업자인 유일한은 이 목표를 실천하고자 평생 노력한 경영인이었기 때문이다.

유일한은 기업가로서의 공헌 못지않게 독립운동가로서의 공헌도 작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기업 경영인으로서의 유일한을 빼고 그의 인생을 논할 수 없다. 그만큼 유한양행을 통해 그가 이루고자 했던 가치는 오늘날 우리 기업들에 하나의 과제요 책무로 자리 매김 되기에 충분하다.

아홉살 소년의 미국유학

1895년생인 유일한은 평양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유기복은 재봉틀 장사로 자수성가한 상인이었다. 당시 평안도 지역은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고 있었고, 특히 중인과 서민계급 중에 기독교 신자가 많았다.

유기복 역시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됐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해 제법 재산을 모았다. 그는 미국 감리교 교단에서 조선인 유학생을 선발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 김기복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1904년 불과 아홉살이었던 유일한을 미국으로 유학 보냈다. 유기복은 자신의 자식들이 식견을 넓혀 민족을 위해 일하기를 바랐기에 유일한 뿐만 아니라 다른 자식들도 러시아, 중국, 일본에 유학시켰다.

어린 유일한의 유학생생활은 미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아버지가 환전해 준 돈을 잃어버리면서 고달프게 시작됐다. 미국에 도착한 그는 독립운동가 박용만의 주선으로 네브라스카 주의 커니라는 작은 농촌마을에 정착했다. 그곳의 독신 자매인 태프트 자매의 집에 기거하면서 영어를 배우고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당시 미국사회에서 작은 동양소년이 자신의 꿈을 펼치기란 쉽지 않았지만 유일한 주변에는 그를 도와주고 성장시키려는 한인 리더들이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서재필과 박용만이였다. 당시 미국 내 한인사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이들은 유일한의 재능을 알아봤고, 유일한이 대학을 마치고 미국에서 식품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후견인 역할을 했다.

청소년기의 유일한은 독립군 양성을 위해 박용만이 설립한 헤이스팅스 소년병학교에 입학해 민족의식을 키웠다. 고등학교 시절까지 유일한의 이름은 '유일형'이었지만 민족의식이 투철했던 그는 조국을 잊지 않겠다는 각오로 '유일한'으로 개명했다.

주변의 기대와 보살핌 속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미식축



구선수로 활동하는 등 미국사회에 잘 적응한 유일한은 미시간 대학 상과대학에 입학해서 경제학을 공부하며 당시 재미교포 사회에서 활발히 일어났던 독립운동에도 깊숙이 가담했다.

1919년 일어난 3·1운동은 20대인 유일한의 피를 끓게 했다. 유일한은 서재필이 만세운동에 호응하기 위해 필라델피아에서 소집한 제1차 한인연합회의에 참석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며 한인사회의 젊은 지도자로 주목받았다. 이때 그는 독립운동결의문 작성 기초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회장에서 직접 결의문을 낭독했다. 또 이 대회 이후 유일한은 독립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맹호군 창설에 비밀리에 기여하기도 했다.

유일한은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해 성장했고 직장 생활과 사업체도 미국에서 운영했으니 미국이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었다. 미국에서 배운 자본주의 정신과 침례교 신앙은 평생토록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유일한은 자신의 조국을 잊지 않았고, 잊을 수 없었다. 미국에서의 안락한 삶보다는 조국의 비참한 현실이 더 강렬하게 뇌리에 박혔다.

유한양행의 창업

대학 졸업 후 제너럴 일렉트릭에 취직해 사회생활을 시작한 유일한은 곧 자신의 회사인 라초이 식품회사를 설립했다. 이때가 그의 나이 스물일곱살 때였다. 경영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라초이 식품회사는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숙주나물 통



조림을 제조해 중국계 미국인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사업은 번창해 라초이 식품회사는 승승장구했지만 유일한은 귀국을 결심했다. 그의 귀국 결심은 북간도에서 가족과 상봉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1925년 유일한은 숙주나물의 원료인 녹두를 구매하려고 중국을 방문했다. 그는 그곳에서 꿈에 그리던 가족들과 상봉했다. 아홉살의 나이에 고국을 떠난 지 21년 만이었다. 그리고 북간도에 이주한 조선인들의 참상을 직접 목격했다. 또 일제의 수탈로 식량과 의약품이 부족해 죽어가는 조국 동포들의 비참한 현실에 눈을 떴다.

유일한은 의약품 부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고국에 의약품 회사를 세우고 싶었다. 잘나가던 라초이 식품회사를 동업자에게 넘기고 50만달러의 자본금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26년 영구 귀국해 유한양행을 설립했다. 유일한은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동포들의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는 길은 제약회사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건강한 국민만

이 잃었던 주권을 찾을 수 있다'라는 신념에서 제약회사 설립에 온 힘을 쏟았다.

1926년 12월, 자신의 이름에서 '유한'을 따고 세계로 통한다는 뜻을 가진 '유한양행(柳韓洋行)'으로 회사의 이름을 지었다. 유한양행의 심볼인 버드나무는 유일한이 귀국할 때 서재필이 회사가 버드나무처럼 융성하라고 선물해준 버드나무 목각판에서 따왔다.

유한양행 설립 초기에는 미국에서 결핵약을 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을 주로 했지만, 1933년 진통소염제인 안티푸라민을 처음 개발해 판매하면서 의약품 제조회사로 본격적인 사업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는 사업을 다각화해서 의약품 생산과 함께 위생용품, 농기구, 염료 등을 수입해서 보급하고 화문석, 도자기, 축제품 등을 미국에 수출해 민족자본 형성에도 이바지했다.

이는 애초 민족의 실력양성과 경제적 자립을 염두에 두고 자신을 미국으로 유학 보냈던 부친의 뜻을 실현하는 길이었고, 동시에 자신이 품고 있던 민족독립의 꿈을 도모하려는 것이기도 했다.

견리사의(見利思義)

논어(論語) 헌문편에 견리사의(見利思義)란 말이 있다. 안중근 의사의 붓글씨로도 유명한 글귀인데 '이익을 보거든 의로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뜻이다. 자본주의 경쟁체제에서는 순진한 발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유일한의 경영철학은 견리사의의 관념적 글귀를 현실에 적용시키는 것이었다.

유일한은 부정한 방식의 거래와는 절대타협하지 않았다. 50~60년대, 권력을 위한 기업들의 정치자금 상납이 상식이던 시절, 유일한은 정권의 흑독한 탄압과 이권의 유혹 속에서도 단 한 푼의 정치자금도 내지 않았다.

그 대신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야 정부가 국민을 위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영철학을 철저히 실천해 단 한 톨의 누락도 없이 세금을 냈다.'



유한양행

유일한은 정치자금을 내지 않은 것을 빌미로 혹독한 세무조사를 수없이 받아야 했지만, 세무당국도 한 치의 어김 없이 납세의무를 지킨 그에게서 탈세 혐의를 씌우기는 어려웠다.

특히 1968년 3개월에 걸쳐 세무조사가 혹독하게 진행됐지만 어떤 탈세혐의도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하던 세리들도 놀랄 정도였다. 오히려 이 조사 이후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유한양행이 정직한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갖게 된 계기가 됐다.

유일한은 기업경영에서도 선구자적 업적을 많이 남겼다. 제약회사 최초로 증시에 상장해 기업을 공개했음은 물론 종업원 지주제를 최초로 실현한 경영자이기도 했다. 요즘은 '우리사주제도'라는 이름으로 많은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유일한이 종업원 지주제를 시행하던 당시에는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는 기업인들은 거의 없었다.

1962년 유한양행을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총 주식의 52%를 종업원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했는데 오늘날 기업들이 억지추향으로 흉내만 내는 우리사주제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이후 유일한은 자신의 주식을 장학재단에 기증하고 학교법인 유한재단을 설립해 교육사업에 헌신했다. 1969

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때 자신과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조곤순 전무에게 사장직을 승계시켜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했다.

미국 변호사로 활동하던 유능한 아들이 있었음에도 가족에게 경영권을 세습하지 않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것이다. 이 역시 파격적이었고 당시 사회적 반향은 매우 컸다.

1971년 별세하기 전 유일한은 손녀딸의 학자금으로 쓰일 1만달러를 제외한 전 재산을 교육 사업에 기부한다는 유서를 남겼다. 유일한이 살던 집은 현재 성공회대 학교에서 신학연구소 사무실로 쓰고 있다. 또한, 그의 사회 기여로 세워진 유한공업고등학교는 성공회대학교를 마주하고 서 있다.

유일한에게 기업은 목적이 아니라 나눔을 위한 수단이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자신의 가치판단 기준은 국가, 교육, 기업, 가정의 순서라고 강조했고 이러한 원칙을 지키고자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고 채찍질했다. 이러한 노력이 홀로 태평양을 건너 유학길에 오르던 아홉살 소년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의 창업자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글 | 백재호 편집장

'이윤의 추구는 기업성장을 위한 필수 선행조건이지만

기업가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 유일한 -

Cheong
'자연'을 노래·하·다·
Song

청송캠핑축제

Cheong Song

2013년 **4**월 ▶ **11**월 매월 둘째주 (총 8회)

사과공원, 청운하천, 중평솔밭 등



참/가/안/내

	1박2일	2박3일	비고
참가비용	2만원		텐트 1동 기준
텐트 대여 비용	2만원	3만원	
참가신청	전 화 : 054) 851-7184 이 메 일 : worldcf@hanmail.net 홈페이지 : www.worldcf.co.kr		

* 개인용 전기는 제공되지 않으며, 화장실 및 세면대 시설이 불편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 성과, 선비정신이 해답이다

공공조직이든, 기업체든 조직관리와 활성화의 궁극적 목표는 '성과창출'이다. 성과지향적이며 성공하는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CEO와 임직원 모두가 전략과 열정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비전과 열정으로 과제를 해결해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CE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참다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참다운 리더십을 조선 500년을 지탱하게 해 준 원동력, 즉 '선비정신'에서 찾아보는 건 어떨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책이나 읽고 세상물정 모르면서 고집만 피우는 답답한 모습의 선비만을 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입으로 공자왈 맹자왈만 외치고 다녔던 사람들 정도로 평가절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비의 궁극적 목표를 알고 나면 생각은 달라진다. 선비의 지향점은 치인(治人)이다. 세상을 다스리고자 엄격한 자기 수양(修己)을 통해 덕을 쌓고, 도덕적 원칙을 지키며, 끊임없이 공부하고, 인(仁)과 의(義)를 실천했다. 더불어 이익이 앞에 있을 때 옳고 정당함을 먼저 생각하는 건리사의(見利思義)와 나라가 어려움에 부딪치면 자신의 목숨도 던지는 건위수명(見危授命)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겼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선비다운 CEO, 선비다운 리더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선비가 실천한 덕목을 현재에 대입해보자.

선비가 실천한 인(仁)은 남을 사랑함이다. 조직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인의 실천이다. 직원들과 팀워크를 이루면서 성과를 내는 데 있어 기본이 바로 인이다. 또한, 의(義)는 옳바름을 말한다. 조직에서 리더의 행동이 공정하면 구성원들은 모두 불평 없이 즐겁게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 또한, 리더의 행동이 직원들에게 떳떳하고 투명하다면 그것 덕분에 자신의 설득력과 영향력은 점점 높아지게 된다.

특히 기업 조직의 측면에서 건위수명(見危授命)의 정신과 행동은 조직의 생존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탄탄한 기

업도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조직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이 위기극복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조직의 리더도 건리사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조직의 리더가 사리사욕을 앞세우지 않고 이익을 얻는 과정의 옳고 그름을 생각해 공정하고 떳떳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구성원들도 리더를 따르고 신뢰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건리사의(見利思義)의 정신이다.

선비정신을 반영한 CEO, 리더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자신의 현재 위치를 깨닫고 직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자기 수양을 철저히 해야 하고, 지식정보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 선비가 위를 공경하고 아래를 보살폈듯이 CEO 또한 기업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처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조직 구성원들 간 인간관계를 이끌어내야 한다. 더불어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을 선비가 실천했듯이, 경제의 주역인 기업의 CEO 또한 공동체에 책임을 다하는 사회공헌자가 돼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환경 변화와 시대 흐름 속에서 바른 눈을 가진 리더도 돼야 한다.

한국적 고품격의 리더십이 바로 선비들에게 있었고, 선비정신이야말로 오늘날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조직관리의 핵심 요체가 될 수 있다고 단언한다.



이진구
경영저널 대표이사 · 발행인

출발 전부터 삐걱거리는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시민단체, 안전성 놓고 끊임없는 문제제기
감사원, 차량선택 특혜·사업비 낭비·통행수요 과다 책정 등 지적
대구시, “안전 철저 대비, 도심 명물 될 것” 자신



내년 하반기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도시철도 3호선 공사가 68%의 공정률을 보이는 가운데, 사업비 낭비와 특혜 의혹, 안전성 논란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 범어천을 따라 질주하는 모노레일의 모습을 합성한 풍경이다.

올해 시범운행을 거쳐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출발 전부터 갖가지 문제제기와 논란에 휩싸이며 뼈격대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대구지하철노조는 3호선이 무인역사, 무인운행, 안전장치 부실 등 안전에 무방비상태여서 대형 참사가 빚어질 수 있다며 완벽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30m 간격으로 695개가 설치될 교각이 도심의 흉물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시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도 최근 수요 예측 과다를 비롯해 사업비 낭비, 중전철(기존 지하철)에서 경전철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 제공, 재해방지 대책 소홀 등을 담은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구시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도시철도 3호선을 놓고 제기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감사원 결과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대구시의 입장도 확인했다.



영터리 수요예측 · 특혜?

대구 도시철도 3호선과 관련한 잡음은 안전성 우려에서 시작돼 최근의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감사원은 4월30일 발표한 감사결과를 크게 4가지로 압축된다. 차량선택 특혜, 사업비 낭비, 차량기지 재해방지 대책 소홀, 수요 과대 책정이다.

감사원은 차량선택 특혜 지적과 관련, 대구시가 기존 지하철(중전철)에서 한국형 무인경전철인 K-AGT(무인자동대중교통수단, 고가도로 형태의 전용 궤도를 따라 주행하는 방식)시스템으로 옛 건설

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지만, 모노레일(한 줄로 된 콘크리트제의 굵은 레일을 달리는 교통기관) 시스템으로 차량을 변경한 후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 승인 없이 모노레일 차량을 구입한 뒤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특정업체의 낙찰을 염두에 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사업비 낭비 부분에서도 대구시가 K-AGT 차량을 모노레일로 변경하면서 K-AGT의 경제성이 모노레일보다 1천 934억원 더 있는데도 운영 비용을 임의로 축소하는 방법으로 모노레일이 2천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사업개요

구간	대구 북구 동호동~대구 수성구 범물동
길이	23.95km
정거장	30개(차량기지 2개 포함)
차량형식	모노레일시스템, 무인자동운전, 3량1편성
사업비	1조4천584억원
시운전	2013년 10월~2014년 10월
개통	2014년 하반기

377억원의 경제성이 더 있는 것처럼 검토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K-AGT보다 경제성이 부족한 모노레일로 추진하면서 경전철 사업비 5천693억원(사업비 2천202억원, 운영비 3천491억원)을 낭비하게 됐다는 것이다.

교통수요 과다 예측도 지적했다. 3호선 교통수요 검토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았고 교통수요 변동 요인이 생겼는데도 이를 미반영, 애초 일일 25만837명(기준연도 2016년)을 기준으로 잡았으나 현재 추정 통행량은 예측 수요의 63%인 15만9천53명(재 추정치)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택지개발에 따른 추가 통행량을 산정하면서도 국가교통DB센터(KTDB)에 구축된 통행발생원단위(1인이 유발하는 일 통행량)를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적용해 통행량을 과다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북구 동호동 차량기지 입지(서리못 아래쪽)를 선정하면서도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한 후 소방방재청에 사전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해 홍수 때 운행 중단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강력 반발

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는 5월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감사원에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청구를 해놓은 상태다.

대구시의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특혜가 없었고, 안전도 철저히 대비했다. 억울하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의 지적대로라면 2천억원이 넘는 특혜와 5천억원을 초과하는 사업비 낭비를 했는데도 대구시에 주의 처분만 내린 부분을 이해할 수 없으며, 수요예측을 제외한 나머지 감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혜의혹과 관련해 대구시는 모노레일로 차량을 변경한 것은 자문위원회의에서 19명 중 8명이 대구지역에 가장 적합한 것이 모노레일이라고 했고, 발주 당시 모든 회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차량 조건을 별도로 명시했기 때문에 입찰을 제한해 특정업체를 밀어줬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비 낭비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에서 수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물가변동 및 추가 공사비를 미반영한 결과라고 했고, 차량기지 재해방지 대책소홀과 관련해서는 사전재해영향성 협의 당시에는 서리못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복구청이 내달부터 공사에 들어가 3호선 개통 이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감사원 공보담당관실 조성익 감사관은 “적발된 사항에 대해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징계와 검찰 고발인데, 공무원 징계 시효 2년여가 지나버렸고, 금전거래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할 수 없어 검찰 고발이 어려웠다. 그래서 주의조치에만 그쳤다. 하지만, 적발된 사항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조 감사관은 또 “모노레일로 차량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은 분명히 모노레일로 바꾸자는 의견을 낸 적이 없었다. 자문위원회 회의록도 존재한다. 이처럼 우리는 정확한 팩트와 근거, 대구시도철도건설본부 실무자들의 인정 내용을 근거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며 “대구시의 재심의 청구는 의례적인 행위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 주요 내용

차량 선정 특혜

경전철 변경 과정에서
특정업체 특혜 제공

수요 과다 책정

교통수요 변동 요인 미반영 등으로
현재 추정 통행량 예상치 63% 그쳐

사업비 낭비

운영 비용 임의 축소 등으로
사업비 5천693억원 낭비

재해방지 대책 소홀

재해 예방 대책 마련 없이
동호동 차량기지 입지 선정

안전성 문제는 없나?

10년전 대구지하철 참사를 겪은 대구시민들로서는 아무리 대구시가 모노레일의 안전성을 강조하더라도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폭 2.9m, 길이 15.1m 차량 3대를 한 번에 연결해 지상 7~29m 높이의 선로를 승무원 없이 시속 50~70km로 운행하는 점과 화재나 응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난 4월 대구지역 기업체 대표와 교수 등 40여명을 초청해 어린이회관 앞 325정거장에서 작업차 시승 행사를 열어 모노레일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급 사고 발생 때 대비할 대피로가 선로 상에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대구지하철노조는 “모노레일이 20km 이상 장거리를 무인운전하는 사례를 보지 못했다. 사고 대비 안전요원 배치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3호선 만들기 강북주민모임’은 “아무리 첨단 설비라도 1%의 실수나 오류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3호선 안전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홍희락 국회의원은 “대구경전철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문화갑 전 대구시장은 “지상에서의 안전 사고는 매우 위험해 세계적으로 지상 모노레일을 끊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대구시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는 최대 풍속 초속 70m에도 차량이 넘어지지 않고 리히터 규모 6.5의 지진에도 견디

도록 설계가 돼 있고, 모노레일이 고장날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밀고 가서 인근 정거장에 승객을 대피시키는 기능을 갖춰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또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스크린도어 및 비상탈출장 설치와 안전요원 탑승대책까지도 계획하고 있다.

안용모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3호선 모노레일 시스템은 전 세계 14개국 50여개 도심 노선에 운행될 정도로 검증됐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서 “오히려 교통난 해소와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도심의 명물이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글 | 배준수 취재부장

사진 제공 |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

DGB금융그룹 창립 2주년, ‘지역을 애인처럼’

중소기업 · 서민금융 2조6천억 지원

향토 지역은행인 대구은행의 후신인 DGB금융그룹(회장 하춘수 대구은행장)이 지난 5월17일 금융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 창립 2주년을 맞았다.

DGB금융그룹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역사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임직원들의 의지를 담은 ‘지역을 애인(愛人)처럼’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중소기업 및 서민 금융 지원, 소외계층 대상 사회공헌 확대,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 분야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DGB금융그룹 창립 2주년을 맞아 한자리에 모인 DGB금융그룹 계열사 임직원들.
좌로부터 이찬희 (주)대구은행 부행장, 손순호 대구신용정보(주) 사장, 김기주 (주)DGB캐피탈 사장, 하춘수 DGB금융그룹 회장, 서정원 유페이먼트(주) 사장, 천해광 (주)DGB데이터시스템 사장, 박동관 (주)DGB금융지주 부사장.

먼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 분야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자회사인 대구은행과 DGB캐피탈을 통해 전년 대비 2배 수준인 2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올해 1분기 중 이미 8천700억원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CEO가 직접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 정책인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빼기' 등의 창조경제에 적극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춘수 회장이 직접 서민금융대출 창구에서 상담하고 있다.

또한, 금융권 최초의 아동 복지시설인 파랑새드림 지역아동센터 개소, 조손가정 Total Care 사업,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파랑새 시니어 행복한 일터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는 DGB금융그룹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 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다문화 가정 토털 케어(Total Care)' 사업을 추진해 교육, 치료,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칭)DGB 다문화센터를 오는 7월 개소할 예정이며, 출범 2주년을 맞는 5월 한 달을 '불우시설 봉사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DGB 사랑의 집수리의 날 행사를 통해 소외이웃의 노후 주택을 수리해 주는 활동을 벌인다.

이 밖에도 지난 2월 계약직원 15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이어 3월에는 7급 신입행원 95명을 선발하는 등 청년 일자리 채용에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며, 제1회 대한민국 가곡제 개최,

뮤지컬 페스티벌, 오페라축제 등 '기업 메세나' 활동에도 지역 대표기업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하춘수 회장은 "DGB금융그룹의 출범 2주년 캐치프레이즈 '지역을 애인(愛人)처럼'에는 비 올 때 묵묵히 우산을 받쳐주는 애인, 아플 때 먼저 찾아와 더 아파해주는 애인처럼, 지역민에게 감동을 주는 애인이 되고자 하는 DGB금융그룹 임직원의 각오를 담았다"면서 "지역을 애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경제 발전의 버팀목이 돼 꿈과 풍요로움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글 | 배준수 취재부장
사진 제공 | DGB금융그룹

DGB 금융지주

DGB금융그룹은

출범 당시 3개 자회사·총자산 33조7천억원으로 출발했으며, 올해 1분기 기준 5개 자회사에 총자산 39조8천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특히 큰 그룹보다는 알찬 그룹을 지향해 적정 성장은 물론 안정적인 자산건전성과 견고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 사회공헌 및 지속가능경영에도 금융권 최고의 모범 그룹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결과, DGB금융지주는 국내 장기기업대상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2년 연속최고등급(AAA)을 받았고, 자회사인 대구은행은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에서 7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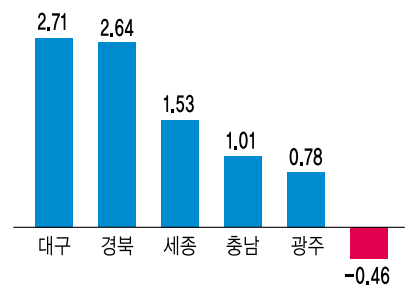
대구혁신도시 서한이다음 479가구가 100% 계약을 달성했다. 일반순위 선착순 추첨계약에 예비당첨자 1천여명이 몰려 대구 동구 신암동 모델하우스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세종시 누른 대구 아파트값, 4·1 부동산대책 약발 받았나?

대구·경북 아파트, 매매·전세가 큰 폭 상승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건설사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미분양이 속출했던 대구·경북의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뛰고 있어 주목된다. 대구와 경북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상위권을 휩쓸면서 새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발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률 상위 5위 지역
(단위:%)



※연초 대비 5월17일 기준

자료 : 부동산114

이 같은 현상은 부동산 전문업체의 각종 지표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KB부동산 알리지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대비 모두 상승했으며, 이 가운데 대구와 경북 구미·포항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올해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구미로 4.97% 상승했고, 이어 대구 북구(4.39%), 달서구(3.23%), 달성군(3.11%), 서구(3.09%), 남구(3.08%), 동구(3.01%) 등 대구지역이 모두 차지했다.

전세가에 있어서도 대구 북구가 5.01%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포항 북구 4.52%, 대구 동구 4.24%, 달서구(4.23%), 서구(4.01%), 구미(3.94%)로 상위권에 랭크됐다.

한국감정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상승세가 더욱 도드라진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월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1.12% 올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뛰었다. 주택 부족으로 집값이 치솟고 있는 세종시(0.92%)보다 더욱 가파른 상승세다. 4월 전국 아파트값 평균 변동률 0.18%와 비교해봐도 큰 격차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지난 2~3년 동안 공급 물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지 않았고, 혁신도시 인근 지역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장기간 상승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114가 내놓은 자료는 대구의 아파트시장이 매도 호가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114 대구지사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 시장은 5월17일 기준으로 지난 2주간 0.14%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상승했다. 동구가 전체 면적대에서 상승세를 나타내며 0.41%의 변동률을 보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외에 북구가 0.24%, 서구 0.13%, 달서구 0.12%, 남구와 수성구 0.05%, 중구 0.03%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상승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대구지역의 신규 분양 성적도 매우 좋은 편이다.

5월 분양된 수성 롯데캐슬 더퍼스트가 1순위에서 평

균 14.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e편한세상 범어가 평균 7.87대 1, 시지 한신휴플러스가 12.56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대구 대표 건설사인 서한의 대구혁신도시 서한이다음도 단 1세대도 남김없이 100% 계약했다.

100% 청약에 대해 부동산 업계는 “계약을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전 세대가 모두 계약완료되는 것은 2000년대 초반,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최전성기일 때나 가능했던 일”이라면서 “지난해부터 중소형을 중심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한 분양열기가 이번 4·1대책과 맞물려 상승효과를 낳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전문업체들은 지역의 아파트값이 2010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뒤 올 들어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타는 것은 주택 부족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대구권역은 공급이 부족해 수급불균형이 여전한데다 부산에 비해 회복이 늦게 시작됐고, 최근 4·1 대책 여파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길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114 측은 “전셋값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서 대출 금리가 내리고 새 정부의 세금 혜택 등이 이어지면서 전세입자 가운데 상당수가 매매수요로 바뀌면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5월9일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4·1부동산대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코씨앤디 전형길 대표는 “4·1 대책의 효과도 봤지만 무엇보다 대구 부동산시장의 체질이 그만큼 강화됐고 합리적 가격과 우수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결과물”이라면서 “분양 대박 단지에 힘입어 대구 부동산 시장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글 | 김원현 기자

세계 최고!!

飛^(비상)上하는 영천



□ 영천경마공원 □ 항공부품산업

영천이 비상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방식과 상속세 절세 방법

A씨는 최근 부친을 잃었다. 부친은 10억원 가량 추정되는 건물을 남겼고, 유가족은 모친과 A씨, A씨의 동생이다. A씨의 부친은 별도의 유언 없이 사망했는데, 이 경우 상속의 방식과 절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상속세'라고 하며,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사망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다. 이때 상속재산의 분할은 유언상속, 협의분할, 법정상속의 순으로 적용되며, A씨의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했기 때문에 협의분할을 고려할 것이다.

상속세의 계산구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해 상속세 과세표준을 도출하고, 여기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A씨의 경우 상속대상자산의 가액을 10억원으로 추정함에 따라 이 금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에 따른 과세가액공제액(공과금 및 장례비용,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상속공제액은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이뤄져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인적공제는 '기초공제(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 배우자상속공제'로 구성된다.

이때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대신에 일괄공제(5억원)를 선택할 수도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르면, 배우자상속공제의 경우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5억원을 공제하며,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0억원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한다.

따라서 A씨는 기본적으로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의 인적 공제만으로 10억원이 모두 공제되기 때문에 부과되는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다음 3가지 경우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세부담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어머니가 모두 상속받는 경우

상속분에 대해 부과되는 상속세는 없으나, 향후 재상속이 발생할 경우 건물가액 10억원 중 기본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

(2) 자식이 모두 상속받는 경우

상속분에 대해 부과되는 상속세는 없으며, 재상속에 따른 추가 상속세가 발생할 우려도 없다.

(3) 어머니가 5억원, 나머지 자식들이 5억원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분에 대해 부과되는 상속세는 없으며, 향후 재상속이 발생할 경우 기본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므로, 건물가액이 현재와 동일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 사례의 해석은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의사결과와 그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신 후 적용해야 한다.



윤기태
경신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광특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관광지역 중에서 시·군·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존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했으나 2004년 10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승인권이 지방으로 이양됐다.

이는 자유로운 관광사업을 보장하기 위해 관광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특정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도시나 관광지역을 구역화해 자유로운 관광사업을 보장하는데 설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승인 조건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특별시 50만명) 이상일 것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앞의 3가지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돼 있지 않을 것 등이다.

1994년 8월 제주도, 경주, 설악, 유성, 해운대 등 5곳이 최초 지정됐고, 2012년 12월 기준 13개 시·도에서 28개 지역(2천631.22km²)이 지정돼 있다. 1997년에는 지정요건의 일시적 완화로 한해에만 14곳이 추가 지정되는 등 각 시·도에서는 지역 내 관광특구 대상지역 1곳씩을 신청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광특구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광진흥개발 기금지원이 가능했던 2008년 이전까지는 별도의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관광특구의 수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부재, 외국인 관광객 유치 부진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관광특구제도 도입 당시 관광사업체 특례 조항이었던 야간 영업시간 제한 완화가 유명무실해진 것도 한 몫하고 있다.

특히 관광특구제도가 개발개념이 아닌 진흥개념인 탓에 2004년 관광특구 지정·관리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 예산부족으로 인한 관광특구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현실성이 없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백암온천관광지는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지만, 편의시설과 콘텐츠 부족 등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국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한 실정이다.

는 제도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또 일반관광지와 차별화되지 못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도 확보되지 않아 관광특구의 실효성을 점차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와 같이 관광특구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각 지역마다 관광특구라는 이름만 남길 공산이 크다.

따라서 관광특구를 타 관광지원 정책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해당 범위에 대한 특례적 지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자체와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관광특구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국제관광테마지구를 살펴보면 더욱 그렇다.

숙박시설의 세제 지원(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별토지보유세 및 사업소세 비과세), 국제관광진흥회를 통한 해외 홍보, 각 지방공공단체의 지방채 발행 특혜 부여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광특구가 속해 있는 지자체의 주민이나 외국관광객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관광특구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재원확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정부가 주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특구 장기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 성과를 지

속적으로 평가해 보다 효과적인 행정 지원을 해야 한다.

덧붙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 지자체의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전문가나 공공기관

중심이 아니라 현장과 지역주민 중심으로 수정·보완하고, 민박사업, 향토음식

점, 토산품점 등 지역주민이 소자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관광사업을 발굴해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기회를 제공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 | 이광희 편집위원

관광특구 지정 현황

시·도	특구명	지정지역	면적(km ²)	지정일
서울(5)	명동·남대문 북창·다동·무교동	중구 소곡동·회현동·명동·북창동·다동·무교동 일원	0.87	2000.03.30, (변경 2012.12.27)
	이태원	용산구 이태원동·한남동 일원	0.38	1997.09.25
	동대문 패션타운	중구 광희동·을지로5~7가·신당1동 일원	0.58	2002.05.23
	종로·청계	종로구 종로1가~6가·서린동·관철동·관수동 예지동 일원, 창신동 일부 지역(광화문 빌딩~송인동 4거리)	0.54	2006.03.22
부산(2)	잠실	송파구 잠실동·신천동·석촌동·송파동·방이동	2.31	2012.03.15
	해운대	해운대구 우동·중동·송정동·재송동 일원	6.22	1994.08.31
인천(1)	용두산·자갈치	중구 부평동·광복동·남포동 전지역, 중앙동·동광동·대청동·보수동 일부지역	1.08	2008.05.14
	월미	중구 신평동·연안동·신흥동·북성동·동인천동 일원	3.00	2001.06.26
대전(1)	유성	유성구 봉명동·구암동·장대동·궁동·어은동·도룡동	5.86	1994.08.31
경기(2)	동두천	동두천시 중앙동·보신동·소요동 일원	0.39	1997.01.18
	평택시 송탄	평택시 서정동·신장1·2동·지산동·송북동 일원	0.49	1977.05.30
강원(2)	설악	속초시·고성군 및 양양군 일부 지역	138.10	1994.08.31
	대관령	강릉시·동해시·평창군·횡성군 일원	428.26	1997.01.18
충북(3)	수안보온천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안보리 일원	9.22	1997.01.18
	속리산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상판리·중판리·갈목리 일원	43.75	1997.01.18
	단양	단양군 단양읍·매포읍 일원(2개읍 5개리)	4.45	2005.12.30
충남(2)	아산시온천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일원	3.71	1997.01.18
	보령해수욕장	보령시 신흥동, 웅천읍 독산·관당리, 남포면 월전리 일원	2.52	1997.01.18
전북(2)	무주 구천동	무주군 설천면·무풍면	7.61	1997.01.18
	정읍 내장산	정읍시 내장지구·용산지구	3.45	1997.01.18
전남(2)	구례	구례군 토지면·마산면·광의면·산동면 일부	78.02	1997.01.18
	목포	북항·유달산·원도심·삼학도·갯바위·평화광장 일원 (목포해안선 주변 6개 권역)	6.89	2007.09.28
경북(3)	경주시	경주 시내지구·보문지구·불국지구	32.65	1994.08.31
	백암온천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일원	1.74	1997.01.18
	문경	문경시 문경읍·가은읍·마성면·농암면 일원	1.85	2010.01.18
경남(2)	부곡온천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사창리 일원	4.82	1997.01.18
	미륵도	통영시 미수1·2동·봉평동·도남동·산양읍 일원	32.90	1997.01.18
제주(1)	제주도	제주도 전역(부속도서 제외)	1,809.56	1994.08.31
13개 시·도 28개소			2,631.22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신청사 건립



새 천년 新 경북의 호를 담아 新 역사의 중심으로!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전원형 '생태도시'

경북 신성장을 이끌어가는 '첨단명품신도시'

새롭게 열리는 웅도 경북, 새천년의 미래가 시작됩니다!





김윤길

청도군청 드림스타트센터 운영팀장

전령사'라는 예쁜 별명을 가진 김윤길(48) 청도군청 주민생활 지원과 드림스타트센터 운영팀장이 주인공이다.

1991년 7월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한 김 팀장은 1994년부터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청도지역 장애인들에게 세탁, 청소, 방도배 등의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매월 정기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결연해 후원금을 지원하는 등 소외이웃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다.

지역 내 문맹자와 검정고시 준비생을 위해 설립한 경산 대안교육센터에서는 야학교사로 맹활약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공무원 18명으로 사회복지행정 동우회를 만들어 청도지역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복지업무추진에도 매우 열정적이고, 소외계층의 권익향상을 위한 일해도 앞장서고 있어 청도지역에서는 '참 봉사자'로 평가받고 있다. 공로도 인정받았다. 1999년 경북지구청년회의소에서 사회개발 및 봉사유공자로 경북청년대상을, 2006년에는 제 30회 청백봉사상 본상을 수상했다.

김 팀장은 바쁘고 힘든 사회복지업무 중에도 자기계발에 힘쓰고 있다. 대구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사회복지사1급, 청소년지도사, 무선종사자 3급, 노인복지레크리에이션 2급 등 다양한 자격증도 취득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수화교육에도 적극 참여해 청각장애인들과 기본적인 수화통역으로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행정 일선에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 팀장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했을 뿐이다. 앞으로 소외계층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수줍게 말했다.

글 | 손지강 편집위원

봉사를 숙명으로 여기는 아름다운 복지전령사

어쩌면 천사이기만을 강요당하는 사람이 있다. 정작 자신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이웃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데 더 몰두한다.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다. 최근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도 묵묵히 일해온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나에겐 휴식이 없었다"고 적힌 한 유서가 사회복지공무원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공무원 처우 개선을 약속하고 있지만, 예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미봉책들만 나열하고 있는 수준이다.

새 정부의 과제이자 시대적 화두는 '복지'다. 관련 정책들이 쏟아진다. 이 정책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업무는 산더미가 되기 일쑤다. 인력 총원 등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근무환경이지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돌 돌 뭉친 사회복지공무원이 있다. '참 복지사' '아름다운 복지



대구 동구청 평생학습과 이정섭 과장(오른쪽에서 네번째), 송길용 학습진흥계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직원들이 대구지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동구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배움의 꽃이 활짝 피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국 최고, 최적의 평생학습도시 동구, 배움의 장을 활짝 열겠습니다

대구 동구청 평생학습과 학습진흥계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걸친 학습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핵심 키워드다. 평생학습은 세계 여러 국가가 국가운영의 주요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주민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임무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는 훌륭한 시민이 완성하고, 이는 평생학습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구 동구청 평생학습과 학습진흥계는 2005년 대구지역 지자체 중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데 이어 2011년에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 수상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최고, 최적의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채움과 나눔

동구청 평생학습과는 2005년 문화공보실의 작은 팀으로 출발해 2011년 독립부서로서 모습을 갖췄고, 지금은 동구민의 교육과 평생학습을 책임지는 동구청의 핵심부서로 자리 잡았다. 평생학습정책을 총괄하는 이정섭(행정 5급) 과장과 송길용(행정 6급) 학습진흥계장, 동구발전장학회 업무를 맡은 도종균(행정 6급) 팀장, 학교교육과 학부모 아카데미 등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황희숙(행정 6급) 팀장이 이끌고 있다. 또한, 명사초청아카데미와 평생학습축제 등을 운영하는 이영훈(행정 7급) 주무관, 예산지출 담당 장준(행정 8급) 주무관,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마을 단위 평생학습 활성화 업무 담당 김재현(전문직) 평생교육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담당 정재욱(전문직) 평생교육사가 든든히 받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채움'을, 평생학습을 통해 '나눔'을 모토로 하는 학습진흥계는 먼저 아양아트센터(옛 동구문화체육회관)를 평생학습센터로, 20개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면서 마을단위에서부터 평생학습이 뿌리내릴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여기에는 명사초청아카데미, 효행문화아카데미, 글로벌새마을지도자양성과정 등 동구만의 특색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동구교육발전장학회를 통해 매년 200여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제공함은 물론 초등생을 대상으로는 일본 문화탐방 연수를 무료로 제공해 글로벌 인재육성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그 결과, Can Do 토요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는



지난해 개최한 동구 평생학습축제에서 이재만 동구청장이 드럼 연주를 체험하고 있다.

방과 후 교육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9회 전국평생학습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이재만 동구청장의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 역임,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1년에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지자체 부문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이정섭 평생학습과장은 "교육과 평생학습을 통한 행복한 일류동구 건설이라는 구청장님의 강한 의지 아래 계원들 모두가 숨 가쁘게 달려온 결과, 교육 불모지,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갖춘 도시, 주민 만족도 최하위인 도시라는 불명예가 이제 동구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면서 "지난해 구정 평가 주민만족도 조사 대구지역 1위 등 구체적인 성과도 거뒀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주민 주도형 평생학습 시스템

동구청 평생학습과는 '평생교육'을 넘어 '평생학습'을 지향한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 학교, 국가, 사회 등 교육실시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평생학습은 개개인이 주체적 학습자로서 능동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단위 시설중심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모두가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스스로 평생학습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두런두런(Do education Run, Do Learning Run) 사랑방' 프로그램이다. 동구주민 7명 이상이 모여 원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에 강사를 보내주고 있다. 또한, 올해는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평생학습을 통한 마을 공동체, 지역공동체 재생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평생학습 마을은 주민이 사는 생활 권역 내에서 평생학습을 가능케 하고, 해체돼 가는 마을문화를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특수시책사업이다.

이밖에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1주민 1개 학습동아리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동구 주민 전체가 학습하는 주민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명품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송길용 학습진흥계장은 "중앙단위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지역주민 중심으로 평생학습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는 공동체 복원에도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 | 배준수 취재부장

사진 제공 | 대구 동구청

주한 아프리카 외교관 초청 새마을세계화사업 간담회

Saemaul Globalization Forum with African Ambassadors to South Korea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2013. 3. 18(월) 그랜드 하얏트 서울

UNWTO ST-EP Foundation
Sustainable Tourism for Eradicating Poverty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3월18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데스몬드 아카워(Desmond Akawor)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 등 14개국 주한 아프리카 대사들과 2005년 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경북형 새마을 사업모델'을 아프리카 대륙에 확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북도 제공.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경북의 공적개발원조(ODA), 새마을운동

ODA

공 적 개 발 원 조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 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해외 선진국으로부터 이 같은 원조를 120억달러가량 받았으나, 현재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기면서 다른 나라에 원조하는 공여

국가로 변신했다. 1977년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기자재를 개도국에 공여함으로써 시작된 우리나라의 공여국가로의 개발협력의 역사는 해외 개도국의 인사를 초청해 교육을 시키고 해외 개도국으로 직접 인력을 파견해 개발 경험을 전하는 등 다양한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새마을 운동과 ODA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 위원회에 가입한데 이어 2011년 부산에서

원조효과성 고급회의를 개최하면서 국제 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2015년까지 ODA의 규모를 국민총소득(GNI)의 0.25%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방식에서 탈피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지식공유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중심에 새마을운동이 있다. 근면·자조·협동을 내세워 잘살아 보자는 목적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성과의 과대 평가, 정치적

목적의 운동이라는 부분에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산업 및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와 88올림픽 등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고도화 된 사회에서의 개발 모델로의 새마을운동은 빛을 잃었다.

이 새마을운동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해외 개발도상국들의 개발 모형을 우리가 경험했던 새마을운동의 방식으로 ODA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산하 단체인 코이카(KOICA)는 라오스 및 캄보디아를 포함한 131개국에 대해 새마을 운동 및 농촌개발 과정에 초청연수를 실시했고, 새마을운동을 기본으로 한 프로젝트(22개국),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 및 봉사단의 파견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식품부 등이 새마을 운동을 기반으로 한 ODA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의 ODA

새마을운동의 중추도인 경북도는 지난 1월 '새마을세계화재단'이라는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한 전진기지를 출범시키면서 세계빈곤퇴치의 실천모델로 평가받

고 있는 새마을운동을 '한국형 원조개발 모델'로 정립해 국제사회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의 새마을 세계화사업은 2005년부터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시작됐고, 2010년부터는 아프리카대륙의 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 카메룬 등 4개국 15개 마을에 매년 80여명의 새마을 리더 해외봉사단을 파견해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새마을운동 해외 전수를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여름방학때 대학생 새마을봉사단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파견하고 있으며, 5월1일에는 700명 규모의 글로벌 새마을 청년 봉사단을 출범시켜 아프리카 등 저개발도상국에 새마을운동을 전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만 110억원(국비 포함)을 투입해 아시아·아프리카 5개국 15개 마을에 90명의 새마을 리더 봉사단을 파견하고 새마을 시범마을을 조성한다. 3개국 3개팀 90명의 대학생 새마을봉사단도 파견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의 지도자와 국내 해외유학생 200명을 초청하는 새마을 연수사업과 해외 현지 거버넌스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관용 도지사는 지난 3월 14일 아프리카 14개국 주한 대사와 간담회를 갖고, 주민 스스로 빈곤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새마을운동을 아프리카에 전파시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 밖에도 새마을 전문 대학원을 개설해 저개발국가의 정책결정 고위공직자 등 지도급 인사를 글로벌 새마을 리더로 육성하고, 새마을세계화재단을 산·학·연·기업 등이 함께하는 새마을사업 전문기관으로 육성해 향후 지구촌 빈곤퇴치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UN산하 국제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다.

'잘살아 보세'라는 목적으로 지역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이제 '지구촌 모두가 잘 살아보는'라는 모토로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새마을운동으로 절대빈곤 상태를 벗어난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인류발전에 도움을 주는데 있어 사명감과 책임감이 더욱 느껴지는 대목이다. 새마을운동의 발상지 경북의 책무는 그래서 더욱 크다.

글 | 김기환 편집위원

개발재원의 형태

구분	지원방법	지원형태	내용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양자간	무상	증여, 기술협력, 프로젝트원조, 식량원조, 긴급재난구호, NGOs 지원
	-	유상	양허성 공공차관
	다자간		국제기구 분담금 및 출자금
기타공적자금 (Other Official Flows)	양자간	유상	공적수출신용, 투자금융 등
	다자간	유상	국제기관 융자
민간자본흐름 (Private Flows at Market Terms)	-	유상	해외직접투자, 1년 이상의 수출 신용, 국제기관 융자, 증권투자 등
민간증여 (Net Grants by NGOs)	-	유상	NGOs에 의한 증여

※자료 : 코이카(KOICA)

서민과 어깨동무 5년, 최고의 서민금융기관으로 우뚝

최종석 내당2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서민들의 자금줄, 지역주민의 사랑방, 평생교육의 장’.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새마을금고의 정체성이다. ‘300억→750억, 5천명→1만명, 40%→70%’. 흑독한 시련기인 금융위기가 닥친 지난 2008년 취임해 5년간 300억원대의 자산을 750억원 이상으로, 5천명선에 머물렀던 회원을 1만명으로, 예금대비 대출비율을 40%대에서 70%대로 급성장시킨 최종석(57) 내당2동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대표하는 성과들이다. 원동력은 투명경영을 통한 고객신뢰 확보, 섬기는 리더십을 통한 폭넓은 인간관계, 소외계층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과 환원, 선진 금융서비스 도입 등이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리는 최 이사장은 “아직도 노력과 배움과 나눔이 더 필요하다”고 간절하게 이야기했다.



최종석 내당2동새마을금고 이사장(가운데)이 직원들과 함께 최고의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권위 버리고 눈높이 맞추다

최종석 이사장의 첫 인상은 덩치가 좋고 카리스마가 넘칠 것 같다. 5분만 이야기를 나눠보면 달라진다. 복덕방(?) 아저씨같이 푸근하다. 권위의식을 찾을 수 없다. 직원들도 최 이사장의 가족 같다. 내당2동새마을금고 고객들도 동네 사랑방 찾듯 한다. 지역주민과 서민의 눈높이에서 기준을 맞춘 결과다.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이 대부분인 서민지역인데다 반경 500m 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지점 6곳, 우체국과 신한 6곳 등 10여개의 금융권 지점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취임 5년만에 300억원대의 자산을 750억 원 이상으로 성장시키고, 회원수 1만명을 자랑하는 우량 금융기관으로 성장시킨 비결이다.

서민의 눈높이에서 투명경영을 통한 신뢰를 확보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여기에도 최 이사장과 생각을 같이 한 직원들의 역할도 컸다. '내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새마을금고에 만족해야 이들이 지역 고객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최 이사장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직원들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소통을 강화했고, 취임 이후 직원 급여를 30% 이상 인센티브 열심히 일한 보상을 철저하게 해줬다.

최 이사장은 "전 직원들이 영업사원이 돼 지역민에게 다가섰고, 제2금융권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지역민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한 결과 금고 자산의 꾸준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했다.

서민의 편에서 나누다

새마을금고가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대부업체 고금리를 이용하는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듯이, 최 이사장 또한 낮은 자세로 서민의 편에서 나눔을 실천해왔다.

서구 내당 2·3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한국자유총연맹 내당 2·3동 지도위원, 내당 2동 방범위원장, 서부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무수한 타이틀을 걸고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 청소년과 노인 등 소외계층을 돕는데 매진해왔다. 물론 매월 급여의 일정부분을 떼어내는 등 전적으로 사비를 털어 넣었다. 최 이사장의 봉사활동이 감투만 좋아해 이뤄졌다면, 서구청이 지난 2010년 '자랑스러운 서구 구민상'의 영광을 최 이사장에게 돌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최 이사장은 "우리지역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길을 가다가도 불쌍한 사람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고,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없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한다"며 "진정한 삶의 가치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걱정하고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말로 오히려 겸손해 했다. 매년 100억원 이상씩 자산을 늘려 우수한 대출 건전성을 유지하고, 주민이 주인인 내당2동새마을금고를 만들고 있는 최 이사장이지만, 포부는 거창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본에 더 충신했다.

"금융시장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대출마진이 감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나라 고유의 주민협동수단인 두레, 품앗이, 향약, 계 등에 뿌리를 두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한 수익금은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에 사용될 것입니다. 달디 단 열매를 지역주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것이 제 계획이자 소망입니다."

글·사진 | 배준수 취재부장

장두욱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장두욱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이 경북지역의 주요 SOC 건설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생활 속에 꼭 필요한, 살아있는 SOC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것, 그것이 풀뿌리 정치의 ABC입니다”

올해 10월이면 환갑을 맞는 장두욱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은 젊은이들 못잖게 활동적이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발로 뛰며 해결하자’는 그의 신조가 뿌리깊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지역은 도청 이전과 신도시 건설이라는 커다란 명제 아래 각종 SOC 건설사업에 대한 염원이 강하다. 여기에도 잇따른 유해화학물질 사고와 산불진화헬기 추락사고 등 악재도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도민들의 대표로서 역할이 막중한 셈이다. 청년 못잖은 패기와 열정으로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펼치는 장두욱 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을 만났다.

Q. 경상도 개도 700주년이 되는 내년까지 경북도청 이전과 신도시 건설이 예정돼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 수장으로서 어떠한 점에 주목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나.

A. 도청 이전은 균형발전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적 과업이다. 신도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돼야 하고, 신도시는 경북의 정체성을 담은 한국적인 녹색성장도시가 돼야 한다. 주거와 교육과 편의시설 등 초기생활권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신도시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Q. 새 정부는 도청 신도시 명품화를 비롯해 동해안 고속도로망 건설, 동서 5축 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SOC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사업들의 조기 추진에 어떠한 힘을 보태고 있나.

A. SOC 없이는 경북의 발전은 없다. 새 정부가 공약한 주요 사업들은 경북의 교통망을 'U자' 형으로 바꾸는 대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건설소방위에서는 사업 관련 지자체 및 의회와 조기 건설 협약을 체결해 공동 대응하고, 중앙부처와 국회에 조기 건설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과 설득작업을 끈질기게 벌이고 있다.

Q. 2011년 구제역 광풍의 아픔을 채 잊기도 전에 경북지역에는 유해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랐다.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사고예방과 사후대책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집행부나 관련기관에 어떠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나.

A. 작년 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 이후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개인적으로도 더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 도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급선무다. 이에 도의회에서도 관계기관, 단체와 소통을 하고, 위험물질 정보공유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에 대비한 전문인력과 장비 부족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Q. 최근 산림청 헬기의 임하호 추락으로 2명의 조종사와 1명의 119 구조대원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산불진화 과정에서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A. 안타깝기 그지없다. 전국적으로 2000년 이후 산불진화 또는 산림헬기 사고는 11건이 있었고, 12명이 순직했다. 또 경북에서는 2000년 이후 12명의 소방공무원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열악한 소방관서의 인명구조장비를 첨단화하는데 노력할 것이고, 소방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철저한 안전교육시스템을 갖추도록 힘쓰고 있다.

Q. 낙동강 강정고령보(우륵교)의 차량통행을 놓고 대구 달성군과 고령군의 심각한 갈등이 교량 준공 1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3일 현장을 찾아 우륵교 개통을 촉구한 바 있다.

A. 달성군은 인근 식당 업주들의 반대와 우륵교 연결도로 개설 사업비 확보 문제로 차량통행 반대를, 고령군은 32억원을 들여 접속도로까지 만들면서 주민편의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내세워 찬성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도로 유지관리와 안전 사고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일반차량의 통행은 허락하지 않고 있지만, 양 지자체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 달성군 쪽 연결도로가 개설되면 차량통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의회는 시·도의회 상생발전 특위 간담회를 통해 대구시의회와 문제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Q.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건설소방위의 역할은.

A.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강하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청신호로 본다. 이에 300억원 이상 공사 최저가 낙찰제 폐지 등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지역건설업체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지원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다. 건설소방위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글 | 배준수 취재부장
사진 | 김원현 기자



예술과 웰빙 조화 이룬 이색 요리와 진수! 한정식·찜요리 명가 ‘만부정(萬富亭)’

★★★★★



경영저널은 단순히 맛집을 소개하는 수준의 천편 일률적인 음식점 정보를 뛰어넘어 고객, 독자의 입장에서 맛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수준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음식명가(飲食名家)’ 연재를 마련했다. 지역의 대표적인 기획재정부 소관 학술연구기관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서 지표로 제시한 서비스 품질측정방법을 활용해 평가했다. 시설과 의사소통 등 서비스의 평가를 위한 외형적인 단서인 ‘유형성’을 비롯해 서비스의 철저

함 등 약속된 서비스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능력인 ‘신뢰성’,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응답성’, 직원의 능력과 예절, 업체의 신용도, 안정성 등을 뜻하는 ‘확신성’, 접근가능성과 고객에 대한 이해 등을 내포한 ‘공감성’ 등 5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겨 평가했다.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으면 별(★) 5개, 80점~89점은 별 4개, 70점~79점은 별 3개, 60~69점은 별 2개, 60점 미만은 별 1개를 부여했다. 경영저널 6월호 음식명가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자리 잡은 한정식·찜요리 명가 ‘만부정(萬富亭)’이 선정됐다.

만인이 찾고, 찾는 이 모두 부자 되리라

‘萬富亭’. ‘만인이 즐겨 찾으시고, 찾으신 손님들은 모두 부자 되시라’라는 임순조(58) 대표의 원대한 소망을 담았다. 그런 만큼 임 대표와 직원들은 ‘따뜻한 한식당’의 모습을 고객들에게 선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손님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소중히 생각하는 임 대표의 고객 사랑 때문인지 한번 찾은 손님들은 모두 단골이 된다고 한다.

음식을 대하는 임 대표의 정성도 이에 한뼘한다. 20여 년 전 요식업을 시작할 때 손님들이 한숫가락의 음식을 먹더라도 건강이 담겨야 한다는 일념으로 화학조미료를 뒀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했다. 매실진액, 꿀, 과일농축액을 사용해 단맛을 내고, 매운맛은 청정 영양고추를 사용하는 등 자연 그대로의 재료만 고집했다.

여기예다 만부정의 고객편의시설도 여유가 넘친다. 1층에는 로비가 있고 귀빈실, 상견례가 가능한 2층, 외식, 사교 모임이 가능한 3층, 최대 8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대연회실이 4층에 갖춰져 있고, 50대 주차가 가능한 공간도 마련돼 있다.

이 때문에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이 제시한 서비스 품질측정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었다.

2층부터 4층까지 대중적인 홀과 대연회실, 중소 규모의 별실에서 손님들이 안락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용도에 맞는 방(Room) 덕분에 ‘확신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임 대표를 비롯해 전 직원들이 밝은 미소, 바른 용모, 바른 말씨로 손님들이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공감성’에서도 손님이 북적이는 식사시간대에는 대기석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만부정은 ‘유형성’에서 20점, ‘신뢰성’ 19점, ‘응답성’ 19점, ‘확신성’ 19점, ‘공감성’ 18점으로 평가받아 100점 만점에 총 95점을 기록했다. 별 5개로 최고 등급이다.

감칠맛의 진수, 찜 요리

만부정의 대표메뉴는 사과, 배, 파인애플 자연재료를 듬뿍 넣은 소갈비찜과 특제 양념소스를 버무린 메로찜이다. 특별메뉴로 내놓은 코다리찜도 호평을 받고 있다.

단골로 찾는 대구법원과 인근 금융기관 직원들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녀도 만부정의 찜만큼 감칠맛이 나는 찜을 맛볼 수 없다”고 감탄을 한다.



임순조 대표

비결은 임 대표의 부지런함과 음식을 대하는 태도이다. 매일 같이 음식에 들어가는 기본재료를 새벽 장에서 직접 발품을 팔아 구하고,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고품격 웰빙 음식을 지향한다. 덕분에 2005년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으로 국무총리상까지 받았다.

임 대표는 “새벽시장을 갈 때나 음식을 조리할 때 항상 콧노래가 나올 만큼 너무 즐겁다”며 “지난 3년간 고령에서 공수해온 한우사골을 우려낸 냉면을 개발하고 있다. 6월 중 개시할 냉면 맛을 기대해도 좋다”면서 활짝 웃었다.

글 · 사진 | 김원현 기자



Daeju 제4회 대구꽃박람회 Flower Show

2013. 6. 5^수 - 9^일 **EXCO**

주최.  대구광역시 주관. **EXCO**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대구은행  대구경북원에농협  한국화원협회대구지회

 (사)경북화원협회  Hotel Inter-Burgo EXCO  리켓링크  CHEVROLET

문의. 053-601-5395 www.flowerdaegu.kr



K-2 전투기 소음 배상금 지연이자 절반도 변호사 뭉

대구지법, 지연이자 288억원 독식했던 변호사에 50%만 인정
대구 동구주민, “지연이자 전액 돌려달라” 강력 반발



지난 2011년 동구지역 전투기 소음 피해 주민들이 규탄 집회를 열어 지연이자를 독식한 A변호사에게 전액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 동구청 제공.

대구 K-2 공군기지 전투기 소음 배상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가 승소한 뒤 독식했던 국가배상금 지연이자 288억원 가운데 절반을 피해주민들에게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연이자는 소장을 접수한 후부터 1심판결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은데 따른 이자다. 하지만, 변호사가 이 소송을 통해 76억7천만원의 성공보수와 144억원의 지연이자 등 모두 221억여원(전체 판결원리금의 28%)을 가져가게 되자 지연이자 전액 반환을 요구해 온 동구지역 전투기 소음 피해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 황영수 부장판사는 5월21일 대구 동구지역 주민 4천여명이 전투기 소음 피해 국가배상 소송을 맡았던 A변호사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금 반환소송에서 “A변호사는 지연이자 288억원의 50%(144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하라”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황 부장판사는 “원고와 피고 모두 지연이자가 288억원에 달하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피고가 그동안 지연이자 50% 반환의사를 밝힌 것 등을 참작할 때 지연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취득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

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자 지난 2011년 9월 K-2 소음피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A변호사를 상대로 과다수임료와 지연이자를 돌려 달라며 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동구주민들은 항소의 뜻을 밝히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재혁 K-2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소송 운영위원장은 “전문가가 의도적으로 지연이자의 개념도 잘 모르는 주민들을 속였다. 그런데도 법원은 주민이 주인인 지연이자의 절반을 변호사가 가져가도록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만 동구청장은 “지연이자는 주민 뭉인 소음배상금에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의 것인데 변호사가 수임료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을 가져가는 것은 문제다”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항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변호사는 2011년 9월 K-2 소음피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511억원의 배상금 중 15%인 76억7천만원을 사례비로 받았으며, 별도로 288억원의 지연이자를 자신의 뭉이라고 주장하며 챙겼었다.

글 | 김원현 기자

화훼예술의 진면목, 제4회 대구꽃박람회

6월 5~9일 대구 엑스코, 꽃으로 지친 마음 치유



꽃박람회의 주제가 힐링인 만큼 꽃과 함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치유의 아열대 숲길(대구불로화훼단지)에서는 다양한 실내공기정화식물들로 '치유의 숲길'을 조성,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이 함께 힐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 소재는 대형 야자수와 관음죽, 아로카리아 등 좀처럼 보기 힘든 대형 아열대 공기정화 식물이다.

지친 몸과 마음을 화려한 꽃 향기로 달랠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대구에서 열린다. 6월5일부터 5일간 대구 엑스코 실내전시장에서 열리는 '제4회 대구꽃박람회'가 그것.

'Healing with Flower'라는 주제로 1만㎡ 규모 역대 최대로 열리는 이번 꽃박람회에는 76개 단체와 기업들이 참가해 힐링을 주제로 한 주제관, 플라워디자인작품, 가드닝, 토피어리, 야생화 등의 다양한 전시작품들과 플라워경기대회, 꽃나눠주기, 원예 강좌 및 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관람객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대 볼거리인 주제관에는 매년 대구꽃박람회를 대표하는 핵심 조형물이 설치되는데, 올해는 대구원예치료아카데미의 '위로와 치유의 하늘정원'이란 작품이 선정됐다. 역경에 도전한 착생식물의 꿈과 희망, 그리고 행복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어준다는 슬로건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3D 거대조형물을 하늘에 두고 공중정원을 배치하여 기존의 평면방식을 극복한 입체감의 독창성이 특징이다.

화훼를 소재로한 다양한 대형 전시관도 조성된다. 영남대 환경관리학과 환경보건대학원은 'People과 Nature & Healing'이란 주제로 친환경 조형적인 작품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치유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힐링가든 개념의 작품을 선보이며, (사)한국꽃꽃이대경협회에서는 '비밀의 화원'이라는 작품을 통해 미로 안과 밖에서 볼 수 있는 꽃작품, 나무와 꽃에 대한 이야기를 제공한다.

이밖에 웨딩스토리관, 외갓집 작품, LED 조명과 꽃의 만남 포토존 등의 이색 볼거리를 만날 수 있으며, 대한민국 1호 농업명장 농학박사 이대건 명장의 이대발안연구소에서는 도시농업형 모델작물로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한국춘란을 배우고 난치료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전시공간도 마련한다. 또 멸종위기의 희귀식물인 '벌레잡이식물' 30~40종을 만나볼 수도 있다.

정리 | 김원현 기자

2013 영주 소백산 철쭉제

2013 Sobaeksan Royal Azalea Festival



일 자	시 간	행 사 명	장 소	비고
5. 31 (금)	19:00~21:00	2013소백산철쭉제 음악회 (전야제)	서천둔치 특설무대	
6. 1 (토)	09:00~13:00	죽령옛길 걷기 (영주문화연구회)	소백산역↔죽령마루	
	11:00~12:00	소백산 산신제	희방사 제2주차장	
6. 2 (일)	08:00~15:00	소백산철쭉제 가족등반대회	소백산 일원	선착순 400명
6. 1 (토)	10:00~17:00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행사	희방사 제2주차장	
6. 2 (일)	13:00~16:00	소백산 등반객을 위한 작은음악회	희방사 제2주차장	

※ 소백산 철쭉제 기간 중 희방사 & 비로사 입구에서 스카프 배부 10:00~

기간 : 2013년 5월 31일~6월 2일(3일간)

장소 : 영주시 서천둔치 및 소백산 일원

주최 영주시 | 주관 영주문화원 054.631.3300 | 후원 경상북도

민족의 영산 소백산서 펼쳐지는 연분홍빛 철쭉의 대향연

6월 1~2일 소백산·죽령길 일원서 영주 소백산 철쭉제



영남지방의 진산(鎭山)이자 민족의 영산(靈山)으로 불리는 영주 소백산은 6월이면 온통 진분홍 물결이 넘실거린다. '철쭉'이 주인공이다. 이 철쭉의 대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영주 소백산 철쭉제'가 6월1일과 2일 이틀간 소백산과 죽령길 일대에서 펼쳐진다. 이 시기에 소백산은 그냥 찾아도 좋지만, 영주 소백산 철쭉제 시기에 맞춰 방문해 죽령옛길 걷기와 소백산 철쭉꽃길 걷기 행사에 참여하면 소백산 철쭉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다.

소백산 죽령옛길 걷기행사는 6월1일 소백산역과 죽령마루에 이르는 죽령옛길 일원에서 진행되며, 길놀이와 죽령고개 사행시 짓기, 주막터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아름다운 죽령옛길을 걸어 올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온달장군의 전투, 신라 화랑 죽지 등 죽령옛길과 관련된 이야기를 적은 안내판을 읽어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죽령옛길은 회방사역에서 죽령주막까지 약2.5km,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길로 코스가 길지 않고 숲이 울창해 6월에 걷기에 더없이 좋은 길이다.

6월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회방사와 비로사에서 각각 소백산 철쭉꽃길 걷기행사가 시작된다. 걷기구간은 회방사~연화봉~비로봉~비로사에 이르는 14km 구간으로 5~6시간 정도 소요된다.

걷기 행사 참여자들을 위해 10시쯤 회방사와 비로사 입구에서 철쭉제 기념 스카

프를 나눠준다. 특히 소백산 주봉인 비로봉(毘盧峰)(1,439m)에는 천연기념물인 주목(朱木)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사계절 명품 경관을 자랑하며, 연화봉 아래에서는 신라 고찰 회방사를 만나는 재미도 선사한다. 회방사 입구에는 영남 제일의 회방폭포(28m)는 봄날 소백산 트레킹으로 땀방울에 젖은 이들을 위해 산행 후 시원함까지 더해준다.

선비의 고장 영주는 철쭉제만 보고 떠나기에는 아까운 게 사실이다.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에 위치한 부석사는 영주여행의 필수코스다.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 건물인 무량수전을 비롯해 국보5점, 보물6점, 도유형문화재 2점 등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10대 사찰 중 하나로, 의상대사가 신라문무왕 16년(676년)에 창건한 절이다. 의상대사와 선묘낭자와의 애틋한 사랑이야기가 지금까지도 느껴지는 곳으로 아름다운 풍광이 감동을 선사한다.

중종 38년(1543년) 주세붕이 세운 소수서원도 빼놓을 수 없다.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에 있는 이곳은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수많은 명현거유 배출은 물론 학문탐구의 소중한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다.

정리 | 김원현 기자

CLICK

e-비즈니스

월간 경영저널 포털사이트와 동반성장할 쇼핑몰 입점 희망업체를 모집합니다!

월간 경영저널이 올해 하반기 정보와 뉴스, 쇼핑몰을 결합한 **영남권 최대 포털사이트**를 오픈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경제계 뉴스, 각계층의 인터뷰, 부동산과 경매정보 등이 망라되고,
영남지역의 농특산물과 특화된 지역 기업체의 제품을 포털사이트 쇼핑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역량이 필요한 회사, 제품 판매 경로를 확대하고자 하는 회사,
좋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셀링파워가 약한 회사, 웰빙 트렌드에 맞는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모두 입점이 가능합니다.

쇼핑몰 입점 업체에는 전문가 경영 컨설팅과 온-오프라인 홍보 등
원스톱 서비스 혜택을 드립니다.

쇼핑몰 입점 문의 :
전 화. 053-766-1368
이메일. k_journal@daum.net

한국정책리서치는 정책가치 실현을 위해 맞춤형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입니다.

한국정책리서치는 2006년 설립 이래
100여개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정책결정을 위한
최고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재)한국행정자치연구원 부설

한국정책리서치

본 원 :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427-6 2F 203호 Tel) 054-823-2829 Fax) 054-823-2828

대구지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38-3 지하1층 Tel) 053-721-6757 Fax) 053-766-0379